

이자공원역

최근 수정 시각: 2025-09-24 14:33:02

분류: 안천구(효빈)의 철도역 | 1988년 개업한 철도역 | 효빈 도시철도 1호선 | 효빈 도시철도 4호선 |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

- [1. 개요](#)
- [2. 역 정보](#)
- [3. 역 주변 정보](#)
- [3.1. 출구 정보](#)
- [4. 일평균 이용객](#)
- [5. 승강장](#)
- [6. 연계 교통](#)
- [7. 기타](#)

이자공원역	
1	4
곽암해수욕장·창선 방면 과남 ← 1.1 km	1 호선 (135)
장선·승남해수욕장 방면 정치 1.32 km →	
해운산입지구방면 탄자 ← 1 km	4 호선 (426)
	천가방면 이자 0.75 km →

역명 표기

1 호선	이자공원
4 호선	ijagongwon 莉子公園/莉子公园/イ ジ ャ パ ク

주소

효빈광역시 안천구 이자동 244

운영 기관

1 호선	효빈교통공사
4 호선	

개업일

1 호선	1988년 2월 9일
4 호선	2003년 3월 5일

역사 구조

지하 3 층 (4 호선)
지하 2 층 (1 호선)

승강장 구조

2 면 3 선 상대식 승강장 (1 호선)

복선 섬식 승강장 (2 호선)

1. 개요

효빈 도시철도 1호선 135번 및 4호선 426번, 효빈광역시 안천구 이자동 244 소재.

2. 역 정보

3. 역 주변 정보

3.1. 출구 정보

이자공원역 출구 정보	
1	이자베르데아파트
2	이자 3 동행정복지센터,이자공원역더샵아파트
3	이자공원역버스정류장
4	이자더샵아파트
5	이자승원펠리체아파트
6	이자공원,이자 2 동행정복지센터

4. 일평균 이용객

연도	1	4	총합	비고
2020년	19,326 명	31,319 명	50,645 명	

2021년	19,826 명	31,635 명	51,461 명	
2022년	27,020 명	37,218 명	64,238 명	
2023년	28,020 명	39,177 명	67,197 명	
2024년	28,338 명	41,239 명	69,577 명	

5. 승강장



6. 연계 교통

구분	정류소명	노선 번호
순방향	이자공원역	25, 35, 45, 56, 57, 251, 258, 351, 451, 522, 561, 571, 752, 5000, 5555, 7000, 8000
역방향	이자공원역(건너편)	52, 53, 54, 56, 57, 251, 528, 351, 451, 252, 561, 571, 752, 5000R, 5555R, 7000R, 8000R

7. 기타

- 도심과 성지를 잇는 가교: 이자공원역은 효빈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대동맥 **1호선 (1988년 개통 구간)**과 안천구 깊숙한 곳을 연결하는 **4호선(2003년 개통)**이 만나는 환승역이다.
- 1호선: 광암/승남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구도심을 연결한다.
- 4호선: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사쿠라우치 리코(이자)'**와 '타카미 치카(천가)' 성지로 이어진다.
- 즉, 1호선을 타고 해수욕장을 구경 온 일반 관광객이나, 타 지역에서 온 팬들이 안천구의 핵심 성지인 이자역이나 탄자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지순례의 관문'**이다.
-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공원: 역명은 인근의 이자공원에서 유래했다. '이자(Ija)'라는 지명이 **[사쿠라우치 리코]**를 상징하는 만큼, 역 바로 위에 조성된 공원에는 피아노 조형물이나 벚꽃 나무(Sakura)가 심어져 있어 팬들의 포토존으로 사랑받는다. 환승에 지친 승객들이 잠시 올라와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 푸른색과 주황색의 대비: 1호선의 상징색인 **파란색(#0077DD)**은 '바다(Aqours)'를, 4호선의 **주황색(#FF5522)**은 '귤(Chika)'을 연상시켜, 두 노선의 만남 자체가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풍긴다. 환승 통로는 이 두 색상을 활용한 모자이크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7.1. 역명과 관련된 여담: 리코의 공원(Riko Park)

이자역과 인접한 이 역은 팬들 사이에서 **'리코 공원(Riko Park)'**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 역사 내부에는 HAF 특별전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대 학생들이 그린 '피아노 치는 사쿠라우치 리코' 초대형 벽화가 상설 전시되어 있다.

7.2. 아이다 리카코의 SNS 인증 사건

아이다 리카코가 이자역 팬사인회를 마친 후 김 비서관의 에스코트를 받아 이 역을 방문, 벽화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린 사건이다.

- **SNS 파급력:** 그녀는 자신의 SNS에 **"효빈시의 '이자공원(Riko Park)역'에서 또 다른 저를 만났어요!"**라는 글과 함께 '리코 빙' 포즈를 취한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 게시물은 전 세계 러브라이버들에게 퍼져나가, 이자공원역을 단숨에 국제적인 성지순례 코스로 만들었다.
- **여담:** 당시 김 비서관이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구도와 조명을 완벽하게 맞추는 전문가적인 자세를 취해 **"저건 단순한 수행원이 아니라 찐팬의 바이브다"**라는 평을 들었다.